

오피니언

월/요/광/장

임우진



6·2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이 끝나가면서 본선 구도도 거의 형성되었다. 그러나 부활 20년이 된 우리의 지방자치는 성숙한 발전은커녕, 권력쟁취를 위한 추악한 거래와 싸움질, 재량권 권력자들의 비리로 정치에 대한 혐오감만 가중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실패에서 배우듯이 오직 자기세력 확장만을 위해 지방선거를 좌지우지하는 정당, 공직을 권력유지와 선거승리의 수단으로 삼는 단체장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을 깨달았다면, 도리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생활과 지역을 믿고 맡길 사람을 어떠한 기준에서 선택해야 우리가 보다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가장 보편적인 선택기준인 도덕성, 능력, 정당참여 문제를 중심으로 기초단체장 선거를 생각해 본다.

6·2 지방선거, 선택의 기준

양심이 베풀어진 사람은 지역에 해악을 끼칠 뿐이다. 이와 같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유권자의 몫이고 책임일 수밖에 없다. 정당은 말로는 도덕공천을 내세우지만 도덕성은 그들의 공천기준이 아님이 이미 확인되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는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우선 공직책임 중 위법행위로 처벌받은 자는 무조건 공직에서 배제해야 한다. 법위반은 도덕위반 행위보다도 훨씬 중대한 일로써, 만일 법적 처벌을 받은 자를 용서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도덕적 비난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후보자가 어떠한 자제로 살아왔고, 어떻게 재산을 형성하였는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단체장에게는 일반적인 정직성, 청렴성, 준법의식, 책임감 외에도 공인으로서의 공정성,

포용력, 희생정신, 애민정신 등 폭넓은 자질을 요구하고,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둘째로 능력과 전문성이다. 지방자치에 이끌려 가는데 필요한 여러 능력과 전문성 중에서 단체장에게 특히 중요한 몇 가지를 제시해 보면, 먼저 지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해 내려는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전략이다.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없이 미사여구로 포장된 구호는 아무 쓸모 없는 空約이다. 다음은 지역 현안 등 갖가지 연구로 분열되어 갈등을 빚고 있는 조직과 주민을 조정, 통합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개혁적 마인드와 이를 실행

당참여를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외국의 경우도 법제도에 상관없이 사실상 정당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비민주적 지역정당이 자치에 전면 참여함으로써 지방선거를 장악하고 여기에서 수많은 폐해가 유발되고 있다. 각종 부패 비리는 돈 공천, 돈 선거에서부터 출발하고, 도덕성을 공언하면서도 비리 전력자, 유죄판결로 공직을 중도하차 한 자를 단체장 후보로 공천하기도 했다. 소속 단체장이나 공천한 후보가 비리로 중도하차하여도 사과 한마디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공천을 관리할 능력도, 공천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없는 정당이 지방자치에 참여하여 자치를 중앙정치로 끌고 가고,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도, 기초 지방자치에 정당참여를 배제하자는 학계, 시민사회, 국민의 요구에 국회의원들은 가득권을 고집하고 있다. 지역차별 정당들의 비민주적 행태와 폐해가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만을 무조건 지지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무책임하고 바보스런 일인가.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제도와 그 운영과 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개선 발전시키기 위한 선택과 심판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민주화의 성지라는 호남이 막스 스스로의 생활을 결정하는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어느 지역 못지않게 후진적인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의 지역적 자존심과 높은 시민의식이 선거 혁명을 통해서 2단계 민주화를 선도해 나갈 수는 없는 것인가.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 <한국자치경영연구원 이사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지방선거 D-30 유권자부터 달라져야

6·2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열전(熱戰) 30일간의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다. 특히 이번 선거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 성격과 띠고 있어 전에 없이 치열한 선거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벌써부터 선거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식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금품·향음 제공에 사전 선거운동 협의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호남을 텃밭으로 하는 민주당 내 공천 잡음이 커지면서 지역민들의 정치열정과 냉소주의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공천 개혁의 상징으로 내세웠던 시민배심원제는 결국 실패로 끝났으며 경선 불복으로 인한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유권자가 달라져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공명선거

를 기대하는데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누가 참다운 지역 일꾼인지 신중히 선택을 해야 한다. 잘못된 선택으로 재보궐 선거를 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정치꾼'이 아니라 유능한 '지역 살림꾼'을 뽑아야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험하면서 실감한 사실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자치단체장·지방의원뿐만 아니라 교육감과 교육위원회도 동시에 선출하는 '1인 8표' 선거다. 광역·기초 단체장, 광역(지역, 비례) 의원, 기초(지역, 비례) 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등 8명의 후보를 선택하려면 후보자의 면면을 치밀하게 따져봐야 순조롭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6월2일의 선택이 앞으로 4년간 지방 정부 살림은 물론 청소년 세대의 교육에도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민들의 선택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새삼 되새길 필요가 있다.

'고질병' 은행대출 대기업 편중 개선 못하

최근 시중은행 대출의 대기업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기업 대출은 더욱 늘리고 반면, 위험도가 높은 중소기업 대출은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2월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원화대출 잔액은 지난달 28일 현재 523조5327억 원으로 전월말보다 1조3600억 원 늘었다. 특히 대기업 대출은 전월말보다 1조4266억 원 늘어난 44조9702억 원을 기록하면서, 1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206조6370억 원으로 2천254억 원 줄어든 반면 두 달간 1조800억 원 이상 감소했다.

이 같은 현상은 은행들이 대출에 있어 안전성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 여기에다 금리가 쌀 때 미리 대출을 받아놓으려는 대기업 심리와 부도위험이 낮은 대기업에 돈을 빌려주려는 은행 의도가 맞아떨어진 것도 대출 편중을 심화시키고 있다.

은행들의 '품보신' 경영 때문에 가뜩이나 돈줄에 목말라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올 1·4분기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실적은 총 9조 479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조 356억원에 비해 4442억원이 늘었다. 3월 말 현재 만기 연장을 포함 96.4%로 전년 동기(97.2%) 대비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경기 회복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혈액과 같다.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돌아야 대기업은 물론 한국경제의 건실한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들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계속 외면한다면 국가 경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은행권은 중소기업이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출 등 각종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가치 있게 살다가 가치 있게 가는 길.. 이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길인 것이다. 나는 기필코 마나슬루 정상에 태극기를 휘날리고 말겠다. 이것은 절대로 가능하며 성공하지 않을 수 없다"(김정섭 '집념의 마나슬루')

네팔 히말라야 중앙부, 안나푸르나와 시샤파마 사이에 위치한 마나슬루(Manaslu·8,163m)는 세계 제 8위의 고봉이다. 현지인들은 '마나사(Manasa)'라고 부르며 신성시한다. 산스크리트어로 '영혼'이라는 뜻이다.

한국 산악계와는 질긴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우리나라 원정대가 처음 도전했던 8,000m급 봉우리가면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산이다. 현재 산악인을 잃은 남대원 원정에서 8,200m 지점까지 진출했으며, 윤 대원은 K2와 가셔브롬 II 등을 오른 베테랑이다. 현지에선 동료 산악인들이 10일째 수색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대원들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빈다.

습을 비롯한 5명의 대원과 10명의 셰르파를 눈사태로 잃은 비운을 겪었다. 김정섭은 1976년에도 원정대를 다시 꾸려 도전했지만 악천후로 후퇴해야 했다.

광주·전남 산악인이 첫 발을 내디딘 8,000m봉도 마나슬루다. 1972년 원정대에는 오세근(당시 28)씨가 참여했으나 눈사태로 숨겨 광주·전남 첫 희생자로 기록된다. 조선대산악회는 그를 추모하기 위해 20년만인 1992년 도전해 이영철 대원이 17시간의 사투 끝에 정상을 밟았다.

마나슬루



지난달 24일 한국 도로공사 마나슬루 원정대가 정상 공격 도중 기상악화로 조난돼 박형수(27·광주대산악회OB)·윤치원(42)을 치른 산이다. 현재 산악인을 잃은 남대원 원정에서 8,200m 지점까지 진출했으며, 윤 대원은 K2와 가셔브롬 II 등을 오른 베테랑이다. 현지에선 동료 산악인들이 10일째 수색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대원들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빈다.

/정후식 경제부장 who@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칼럼

홍정연



지난 3월, 광주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감의를 나갔다. 초등학생들에게 필자의 소개를 하고 나서 검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아느냐'고 물어보자 학생들로부터 각양각색의 대답이 나왔다. 그 중 학생들로부터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는 대답은 '죄인을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초등학생들에게는 죄인을 감옥에 가두는 것, 즉 징역형이 가장 일반적인 형벌로 여겨지나 보다. 하지만 위 수감제도가 도입된 것은

비록 피의자가 죄를 지었지만 그러한 죄를 짓게 된 경위, 피의자가 살아온 그 동안의 환경, 앞으로 피의자가 같은 죄를 저지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피의자에게 형벌을 구하지 않고 사건을 잠정적으로 종결하는 것이다. 기소유에 처분을 하면서 피의자가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 피의자를 도와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행한 무면허운전 피의

검사가 하는 일?

19세기에 이르러서이고, 기원전 17세기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는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하고,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피해자의 집의 노예가 되어야 하며, 환자를 죽게 한 의사는 손을 절단하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노예는 귀를 자른다는 식의 형벌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어찌 됐든 검사는 형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수사하고, 법원에 그 사람에 대한 형벌을 구하고, 형벌을 집행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의 대답은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 출수 있겠다.

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교통교육을 이수하여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식하도록 하고, 특별한 직업이 없어 생계를 위해 물건을 훔친 피의자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실시하는 직업교육을 받아 기술을 익히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교 폭력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선도위원의 선도를 받으면서 학교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피의자에게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 자체를 제거하도록 피의자를 돕는 동시에 잠재적인 피해자도 보호하는 것이다.

피의자를 처벌하는 것이 검사의 일이지만 처벌 없이 새 삶을 살 수 있게 피의자를 도와주는 것도 검사의 일인 것이다. <광주지검 검사>

현실에 맞지 않는 복지제도 하루빨리 개선돼야

회사에서 자원봉사를 다니는데 연세가 67세인 할머니 한 분은 한 달 생활비로 국민연금 27만원, 기초노령연금 8만8천원을 받는다. 하지만, 이 돈만으로는 끼니조차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할머니는 아들 내외가 이혼하여 손녀까지 맡고 있다.

할머니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아들한테 용돈을 받아 사셔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사정은 참 딱한 노릇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이 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들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저소득층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할머니는 그 제도의 수급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부양의무가 없는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회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복지제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는 하루빨리 고쳐서 빈곤의 사각지대에 빠져들고 있는 분들이 구제되어야 한다. ▲성열봉·목포시 온글동

기고

김복실



모처럼 한가한 토요일이었다. 따뜻한 봄날 화분관리도 하고 테라스 청소를 해야겠다 마음이 쓰이자 내 손은 신들린 듯 바빠 움직였다.

그리고 살충제를 물에 희석해 요리조리 뿌려 약 냄새를 풍기니 비실거리며 모두 기어 나왔다. 큰놈은 손가락 크기만 한 것도 있었다. 달팽이 수색 작전을 하더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겨울에 꽃을 볼 수 없던 군자란이 꽃망울을 맺어 그 중 한 송이가 피었긴 했는데, 꽃잎이 일그러져 불품없고 색깔이 요상했다. 다시 관찰하니 민달팽이가 수두룩했다. 지렁이가 분토를 해주듯, 이로운 것인지 몰라서 일단 인터넷 검색을 해봤다.

군자란을 비롯한 내 화분들은 딱히 비싼 것은 없지만 나에겐 오랜 친구들이다. 20년을 넘게 같이 살아온 '팬을 죽', '부모님이 집 팔고 오빠네로 가실 적에 친정집에서 파온 15년 된 '종려나무', 식물원 친구가 준 '철쭉' 그리고 광

민달팽이와의 전쟁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한반도에 전국적 발생이 우려되는 외래 도입종 민달팽이는 시설 원예작물에 피해를 끼치는 별래라고 했다. 꽃잎이나 잎, 열매를 직접 먹고 끈적끈적한 분비물로 작물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병원균을 옮기는 역할도 한다.

양 매화농장에서 얻어온 '서향', 시어머니이 분양해주신 '개발 선인장', 동생이 준 '소철', 비뇨기와 사모가 키우기 싫다고 준 '인삼고무뻤자민', 그동안 검사스러울 때마다 들어온 각종 '난' 화분 등 이사 때마다 따라다녔던 것이다.

특히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과 기생충에 의한 간질을 일으킨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농진청이 나서 민달팽이류의 발생과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과 함께 친환경 방제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나 청정 지역에서만 강하고 있을 것이라 착각한 나는 오싹해졌다.

그런데 내가 나이가 들어 인생이모작 한답시고 너무나도 바빠 귀찮아서 버려지니 추억이 깃들여 있는 거라 쉽게 버릴 수가 없었다. 문득 '법정'스님의 책 무소유의 한 구절이 생각났다.

이 녀석을 외국에서 어떻게 우리 집 에까지 와서 살게 됐을까? "내 꽃잎을 닮았을 때면 따끔거리고 간질거리 혼났어요." 군자란이 내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법정스님이 어느 날, 자주 물 줄 필요 없어 키우기 편한 '난' 화분을 지인에게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여러 날 출타할 일이 생겨 나가려하니 생명체인 그 화분이 마음에 걸리더라 내용이다.

나는 꽃삽으로 뒤적이며 벌레 여러 마리를 잡아냈다. 처음엔 징그러웠지만 이놈들이 예지중지한 내 꽃나무에 피해를 줬다 생각하니 독해 지는 마음에 거침없는 아줌마의 응감성을 발휘했다.

나의 오랜 친구 화분들도 생명체이니 쌓인 정 때문이라도 영원히 함께해야 할까 보다. 나의 화분들을 아낌없이 주는 민달팽이가 아직도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다. 슬프고 밤에만 활동하는 민달팽이와 나와와 전쟁은, 테라스에 모여 사는 화분가족의 평화를 위해 내일도 계속 될 것이다. <주부>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誌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曹庚亮
1952년 4월 20일 創始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92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 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정 계 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경 제 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회 1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